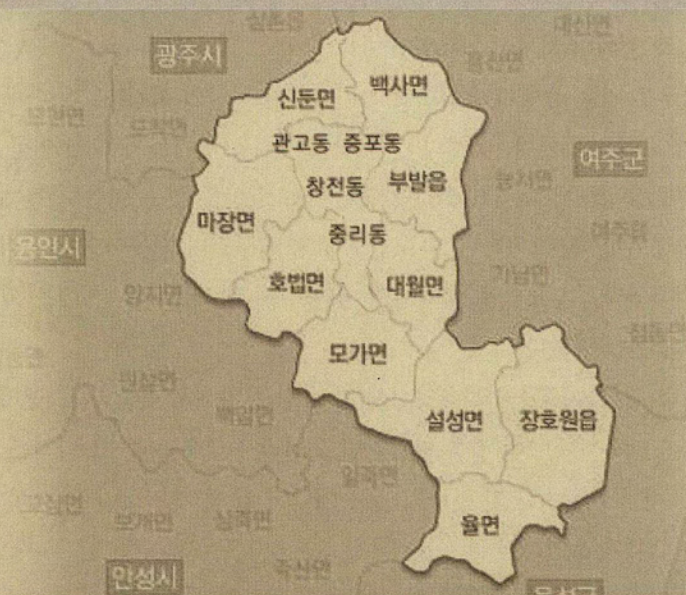


이천시



경기도 동남단에 위치한 시. 동쪽은 여주군, 서쪽은 용인시, 서남쪽은 충청북도 음성군, 북쪽은 광주시와 접한다. 면적은 461.2㎢, 인구는 20만395명(2010년 9월 현재)이다.

∴ 효양산 금송아지

황금송아지를 지킨 산신령

옛날 이천 효양산에는 금송아지가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중국 황제에게까지 알려졌다. 중국 황제는 사람을 시켜 효양산의 금송아지를 찾아오라고 명하였다. 신임이 두터운 관리를 뽑아 그 일을 맡겼는데, 황제의 명을 받은 신하는 수개월간 쉬지 않고 달려와 경기도 땅을 밟았다. 온갖 고생 끝에 용인을 지나 이천까지 왔다. 그날도 하루 종일 걸었는데 해가 이미 저물어 어두워졌다.

어두운 길을 헤매며 효양산을 찾아가다가 지금의 마장면 ‘작별이’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황제의 명을 받은 신하는 반가워서 그 노인을 맞이하며 융성하게 대접하였으며, 그들이 효양산을 찾는 이유도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노인도 효양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그 노인은 백발에 수염이 길게 내려졌으며, 손에는 짙은 지팡이를 짚었다.

중국 신하는 성급하게 효양산에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이 길을 따라가면 오천리가 나오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이천장을 지나고, 구만리 뜰을 지나서 길 하나 건너면 그 산이 효양산입니다”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중국 신하는 매우 당황하였다. 중국에서 조선까지 온 것도 수개월이 걸렸는데, 여기서 다시 오천 리, 구만 리를 가야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게다가 노인이 지닌 쇠지팡이는 원래 석자가 넘었던 것이 짙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중국 신하는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



효양산 전설문화축제 이천시 부발을 효양산에서 개최된다.

였다. 그래서 노인에게 거듭 확인하고는 작별하며 헤어졌다.

중국 신하와 노인이 서로 작별하고 헤어진 곳을 구천동 작별이라 했는데 지금은 작촌리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하는 말로는 중국 신하에게 길을 가르쳐 준 노인은 효양산의 산신령으로, 금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효양산 쌍굴 중 한 개의 굴속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전한다.

∴ 본죽리 열두밤골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해결되다

본죽리의 옛 명칭은 본울동(本栗洞)과 죽울동(竹栗洞)이었으며 두 개

의 마을을 합하여 본죽리로 바꾸었다. 본죽리의 우리말 명칭은 ‘밤골’이며 옛날에는 ‘열두밤골’이라고 하여 12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밤골은 예로부터 안동김씨가 많이 살았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에 김씨 문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한 집이 있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도 툭하면 며느리를 다투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단 하루도 화목한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실컷 꾸중을 듣고 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어서 죽었으면 속이 후련하겠다고 하는 말을 지나가던 중이 듣게 되었다. 중은 며느리를 불러 시어머니를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밤 다섯 알씩을 삶아서 일 년 동안만 시어머니에게 주라고 일러주었다.

중이 이르는 말을 그대로 믿은 며느리는 그날부터 열심히 밤을 삶아 조식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렇게 해서 일 년이 지나자, 죽을 것이라던 시어머니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피둥피둥 살이 찌고 혈색이 좋아져 일 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 그러나 며느리의 지성에 감동한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를 지극히 위하게 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게 되어 남들도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밤울(栗) 자를 따서 울면이라 했다고 한다.

∴ 안 장사와 석교

어머니를 위해 놓은 다리

울면 석산리 석교촌(石矯村)과 산양리 양아(陽阿)부락 사이를 흐르는

석원천(石院川)상류에 오래된 돌다리가 놓였다. 지금은 이 다리 위를 작은 새길이 지나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으며, 다리는 이미 오래 전에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었다. 그러나 옛날에는 충청·경상도 방면에서 한양을 가려면 이곳을 거쳐 용인으로 빠지는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한다.

옛날 석교촌은 안(安)씨들이 주성을 이룬 씨족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 사는 안씨 남자 하나가 젊은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남겨 둔 채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편을 잃고 수개월이 지난 후 젊은 미망인이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우선 몸집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곱절이 클 뿐만 아니라 초인적인 힘을 지닌 장사였던 것이다.



마이산에서 본 이천시 읍면

그런데, 청상과부의 몸으로 아이만 의지하고 살던 안씨의 아내가 어느 날 그만 이웃마을 양아리에 사는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았다. 그 후 밤만 되면 아들 몰래 내를 건너 외간 남자를 찾아가는데, 이미 열다섯 살이 되어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된 아이가 어머니의 행동을 눈치 채게 되었다.

하루는 아이가 잠든 채하다가 몰래 어머니의 뒤를 밟았다. 때는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다리가 없으므로 신발을 벗고 내를 건너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몹시 안타까웠다. 남달리 효성이 지극한 아이는 어머니를 위해 다리를 놓아 드려야겠다고 걱정하고 낮이면 산에 올라가 적당한 돌들을 주워 모아 두었다. 그리하여, 하루는 어머니가 내를 건너간 사이에 모아 둔 돌을 양 옆구리에 하나씩 끼고 날라다가 새벽녘 어머니가 돌아오기 직전에 다리를 완성했다고 한다. 그 후, 이 다리를 효성이 지극한 장사가 놓은 다리라 하여 ‘안 장사 다리’라 부르게 되었고, 장사가 태어난 마을을 ‘석교촌’이라 부르게 되었다.